

사람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처럼 모셔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다

영생교 승리제단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사람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영적 포로가 되어 있는 '마귀 종 하나님'이며,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불쌍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교리는 기독교의 주요 교리인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교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현재 기독교 신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사회 지도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교리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인 측면에서 적군이 아군보다 훨씬 숫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승리제단 교인들은 최제우의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을 먼저 가져온 동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영생교 승리제단이 나아갈 길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은 동학(東學)의 최제우(崔濟愚) 선생이 주창하였다. 최제우는 1860년 4월 5일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받은 체험을 '용담가(龍潭歌)'에 이렇게 써놓았다. "천은 이 망국하여 경신 4월 초5일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형언할까, 만고 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如夢如覺) 득도 로다." 무극대도란 끝없이 위대한 도라는 뜻으로 그날 최제우는 하늘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시천주 사상을 전파한 동학은 민중의 지지를 받고 체제개벽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사진 https://blog.naver.com/tjdurd0730)

만났고, 그 하늘로부터 '시천주(侍天主)와 '오심즉여심(吾心即汝心)'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자신이 얻은 무극대도가 과연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도인가를 1년 여 살피본 후 동학의 가르침을 펴기 시작하였고, 사람을 하늘로 여기는 그 가르침은 주변에 널리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전해 받았다.

최제우는 1861년 6월에 자신이 깨달은 도를 세상에 전하는 포덕(佈德)을 처음 시작하였다. 먼저 그는 평생 구도의 길을 걸으며 고생만 시킨 부인 박씨와 아들, 딸에게 도를 전하였고, 그 다음 두 여자 몸종을 해방시켜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고, 또 한 사람은 수양딸로 삼았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남녀 차별과 반상(班常) 차별의 과감한 철폐였다. 이러한 수운의 파격적인 언행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최제우에게 모여들었다.

시천주하면 영생도 한다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 사상, 즉 세상 사람들이 자신 속에 하늘을 모시며 조화가 얻어지며(造化定) 모든 것을 알게 된다(萬事知)는 것은 영생교 승리제단의 교리와 거의 동일하다. 영생교 승리제단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구세

주)를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며 조화를 얻게 되고 만사를 알게 되며 영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시천주 사상이란 한 발자국 더 발전한 것으로써 모든 종교의 목적인 영생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므로 이 점은 동학의 사상과 완전히 차별된다.

어쨌든 동학이 교세를 확장해 나가자 조선 정부는 촉각을 세우게 되었고, 1864년 1월 18일 '삿된 도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左道亂正之律)'로 최제우를 경주에서 체포한 후 처형하였다. 1860년 4월 하늘로부터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받은 지 불과 4년 동안 포덕을 한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제자들은 최제우의 죄명을 벗겨 교조의 원을 풀고 종교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 교조신 원운동(元運動)을 벌였다.

교조신원운동과 종교의 자유

이처럼 새로운 종교나 운동이 기성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항상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는 법이다. 영생교 승리제단도 기득권 종교와 정치세력에 의한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

1994년 1월 11일 영생교 승리제단 조희성님은 검찰에 구속되었고, 헌금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동년 8월 30

일 징역 4년의 형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5부 김주형 재판장은 종교 단체에서 받은 헌금을 사기로 인정하는 최대의 실수가 될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는 헌법상 인정된 종교의 자유가 유린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후 고등법원에서 2년 6월 형으로 4년에서 1년 6개월이 감형된 뒤, 1995년 4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사기죄로 2년 6월 형을 받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고 전제한 후 원심이 인정한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영생의 교리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기타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교역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 만사 영적 전쟁이다. 영적 약자는 강자의 힘과 논리에 짓밟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강한 영적 힘을 길러야 하며,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서 강자가 되어야 하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전도는 자신의 영만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포로로 잡아 아군으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영적 강자들이 많이 나오면 이 잘못된 판결은 저절로 뒤집히게 될 것이다.*

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영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이겨야 마귀를 이긴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구세주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다. 전도를 해야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영적 싸움의 패배자일 뿐이다. 지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가일층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구세주의 뜻 중의 뜻일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0)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마귀가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는 고로 밤잠을 안 자고 때굴때굴 구르면서 곤두박질치며 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디며 마귀의 수법과 전략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이르렀던 것이다.

마귀가 오랜 세월 전법과 전략을 다 사용하고 나니 마귀의 밀천이 드러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마귀를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내에서 온 것이다.

나라고 하는 간교한 마귀가 30년, 40년을 계속 새로운 무기를 써왔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마귀의 비밀을 완전히 캐낸 것이다.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는 강하게 공격을 시작했던 것이다.*

사건 다시보기

1992년 9월 28일에 일어난 일

이날 괴한들이 조희성님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역곡 북부시장 인근에서 벌어졌다. 괴한 여러 명이 조 총재님이 타고 가는 승용차를 막아서고 영장도 없이 연행해 가려고 하였다.

이때 영생교 전(前) 신도 최순희가 이를 목격하고 제단 비서실에 전화해서 괴한들이 총재님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전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제단 청년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괴한들을 물리쳤다.

휴거때가 세상 어지럽게 할 때

당시 종교계뿐만 아니라 세상 분위기는 예수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공중으로 신자들을 끌어올린다는 소위 이장림의 휴거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때였다. 이장림 목사는 예수가 92년 10월 28일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설교하며 흑세무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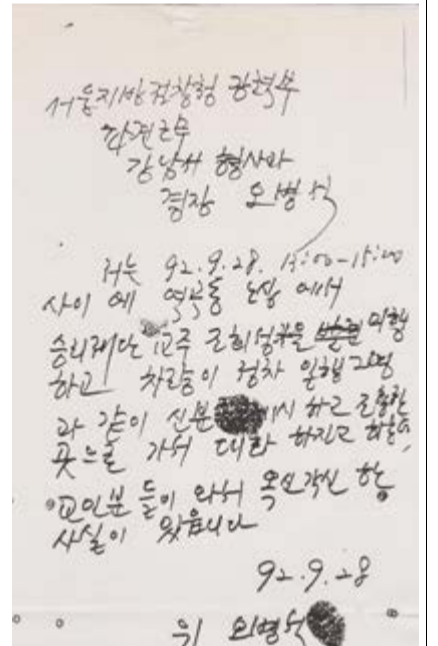
9월 28일 예배를 마친 조 총재님은 승용차를 타고 제단을 나가셨는데 그 얼마 후 조 총재님이 역곡북부시장 인근에서 괴한들에게 납치 직전이라는 긴급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연히 부근을 지나던 승리제단 전(前) 신도 최순희 씨가 현장을 보고 제단에 연락한 것이다. 승리제단 초창기부터 전도관과 기독교 교회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조 총재님이었으므로 위급함을 느낀 청년들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필자도 현장에 즉시 달려갔는데 이미 많은 청년들이 납치범들을 차량에서 떼어내고 당신들 누구냐고 다그치고 있었다. 그 사이에 조 총재님이 탄 차량은 현장을 빠져나갔다. 납치범은 추궁되는 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최순희 씨는 너희들 탁 함을 치면서 그들의 신분을 밝히라고 외쳤다. 부친경찰서 소속 경찰들도 와 습해야 할 지 모르는 듯 우왕좌왕 했다.

그러다가 최 씨는 그들 중 2명을 차에 태웠다. 신분을 밝히기 전에는 절대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여 승용차에 태우고, 당시 영생교 신도인 정모 씨에게 운전을 하라고 하였고, 앞 좌석에는 정복 경찰을 태우고 뒷좌석 가운데 최 씨가 앉고 양 옆에 납치범들을 앉히고 영생교 본부 건물로 향했다. 오는 도중 납치범 한 명은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춘 사이 차문을 열고 도주하였고, 나머지 한 명도 도주하려는 걸 최 씨가 사력을 다하여 바지자랑이

를 잡고 늘어서 그를 영생교 본부로 끌고왔다.

최 씨는 그들을 2층 회의실로 데려가 그의 신분을 밝히려려고 애를 썼는데 도중에 부친경찰서장과 경찰들이 왔고, 그는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다가 부친경찰서장이 온 후에 서울지검 강력부 파견 경찰관 오병석이라고 자필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할 때 보니 오병석이 아니라 오광일이었고, 신변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이름을 숨겼다고 말했지만, 조폭들 잡는 막강한 서울지검 강력부 파견 경찰관이라 쪽팔려서 그런 것인지 오병석(동행한 후배 경찰관)이란 이름을 썼던 것이다(아래 사진 참조).



사건을 조작한 검찰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로 종교지도자인 조 총재를 잡 범들을 연행할 때처럼 임의동행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나서, 법정에서 수배 중인 라모 씨로 착각하고 연행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승리제단 조 총재님과 청년회장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이경재 검사는 사건을 조작하였고, 위 오병석을 자칭했던 오광일의 거짓말을 재판부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믿고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최 씨를 그들 중 2명을 차에 태웠다. 신분을 밝히기 전에는 절대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여 승용차에 태우고, 당시 영생교 신도인 정모 씨에게 운전을 하라고 하였고, 앞 좌석에는 정복 경찰을 태우고 뒷좌석 가운데 최 씨가 앉고 양 옆에 납치범들을 앉히고 영생교 본부 건물로 향했다. 오는 도중 납치범 한 명은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춘 사이 차문을 열고 도주하였고, 나머지 한 명도 도주하려는 걸 최 씨가 사력을 다하여 바지자랑이

발행인 김종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 영 사이에 현재 치열한 전쟁 중이다.

이러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신도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치열한 영의 싸움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신도들은 마귀 영의 포로나 다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까?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승패가 정해져 있는 싸움이 라는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자기도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승리와 자신의 승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구세주는 당신의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자신만은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면 장구한 하늘의 역사의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

구세주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이다. 여기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것은 다른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것이 마귀이고 사망이지만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세상 마귀를 이기는 것을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구세주를 구

새책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해인

‘삶’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고보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인 어떤 것이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